

초등 5학년
독후활동지 (학생용)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나비 부자

글 김해등 | 그림 최정인

스판북



나비 부자

- 글: 김해등
- 출판사: 스펀북
- 분량: 184쪽
- 교과 연계: 국어 5-1 가 4. 작품에 대한 생각
국어 5-2 가 1. 문학이 주는 감동
- 그림: 최정인
- 정가: 11,800원
- 대상: 초등 고학년

책 소개

“제 아버지는 남나비입니다.”

오랫동안 나비 그림을 그리는 일에 전념해 오신 아버지. 나비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실력이 어찌나 뛰어난지 사람들은 아버지를 이름 대신 남나비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나비 앞에서는 양반의 체면 따위 차리지 않았던 조선 제1의 나비 화가 남계우와 그의 아들 주원. 이들 나비 부자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독서 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표지

•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나비부자》의 앞표지와 제목을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등을 써 보세요.



나비부자

번호	앞표지와 제목을 보면서 드는 생각
1	
2	
3	



독서 전

• (2~3) 《나비 부자》의 뒤표지에 쓰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조선 제일의 나비 화가 남계우와 그의 아들 주원.
이들 ‘나비 부자’가 붓끝으로 되살린 나비들의 작은 날갯짓!

“조선의 화가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하지요.
손보다는 가슴을 믿어라.
손으로 수만 번 그려 본들 가슴에 담아 놓지 않으면
정신이 깃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남계우와 주원, 나비 부자는 강대국의 힘을 앞세운 청인의 무례한 요청과
여러 악재가 겹친 위기의 소용돌이를 잘 헤쳐 나갈 수 있을까요?

2 ‘손보다는 가슴을 믿어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
.....
.....

3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비 부자가 겪게 될 이야기를 예상해 보세요.

.....
.....
.....
.....



독서 중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22~23쪽] “인혜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듣고 놀라지 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테니 어서 털어놔 봐.”
 “호호. 전요, 남산골 작은아버지처럼 큰 ()이 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누가 뭐라던…… 진짜로!”
 인혜는 혼자 몇 번이나 다짐했다. 남산골 작은아버지는 <옥루몽>을 지은 빼어난 이야기꾼이다. <옥루몽>은 책방에 들여놓기가 무섭게 동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난 빙긋 웃으며 인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꼭 그렇게 될 거야.”
 “호호, 고마워요. 그럼, 오라버니는 뭐가 되고 싶어요?”
 인혜가 빙긋 웃으면서 되물었다.

1 인혜의 꿈은 무엇인가요? 빈칸에 쓰인 인혜의 꿈을 써 보세요.

.....

2 인혜의 질문에 주원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

.....

3 여러분은 커서 무엇이 되고 싶나요?

.....

.....



독서 중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인상 깊은 내용을 생각하며 책 읽기

• 《나비 부자》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써 보세요.

[108~109쪽] “바보야, 주원 오라버니가 진짜 내 오라버니가 된다니까!”

“무, 무슨 말이야?”

“아이, 넌 정말 답답해!”

인혜가 가슴을 토닥토닥 쳐 댔다. 그러다 대뜸 쏘아붙이듯 주은에게 소리쳤다.

“우리 집 양자로 금방 데려갈 거란 말이야!”

“뭐?”

“숙부님도 결정했던 말이야.”

난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얼어붙어 버렸다. 인혜 말로는 내가 아들이 없는 큰댁의 양자로 가게 됐다는 것이고, 이미 아버지가 집안 어른들 앞에서 허락했다는 뜻이었다.

“으!”

나도 몰래 가슴을 쥐어뜯었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집안 어른들이 결정했다면 죽는 게 아니라면 지켜야만 했다. 내가 가기 싫다고 뺨대 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기도 했다. 가슴이 멍멍해지더니 정신이 아득해져 난 쓰러지듯 무너져 버렸다. 그제야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어쩌면 앞으로도 아버지가 네게 모질게 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구나.”

어머니도 아버지가 정을 떼려고 일부러 나를 모질게 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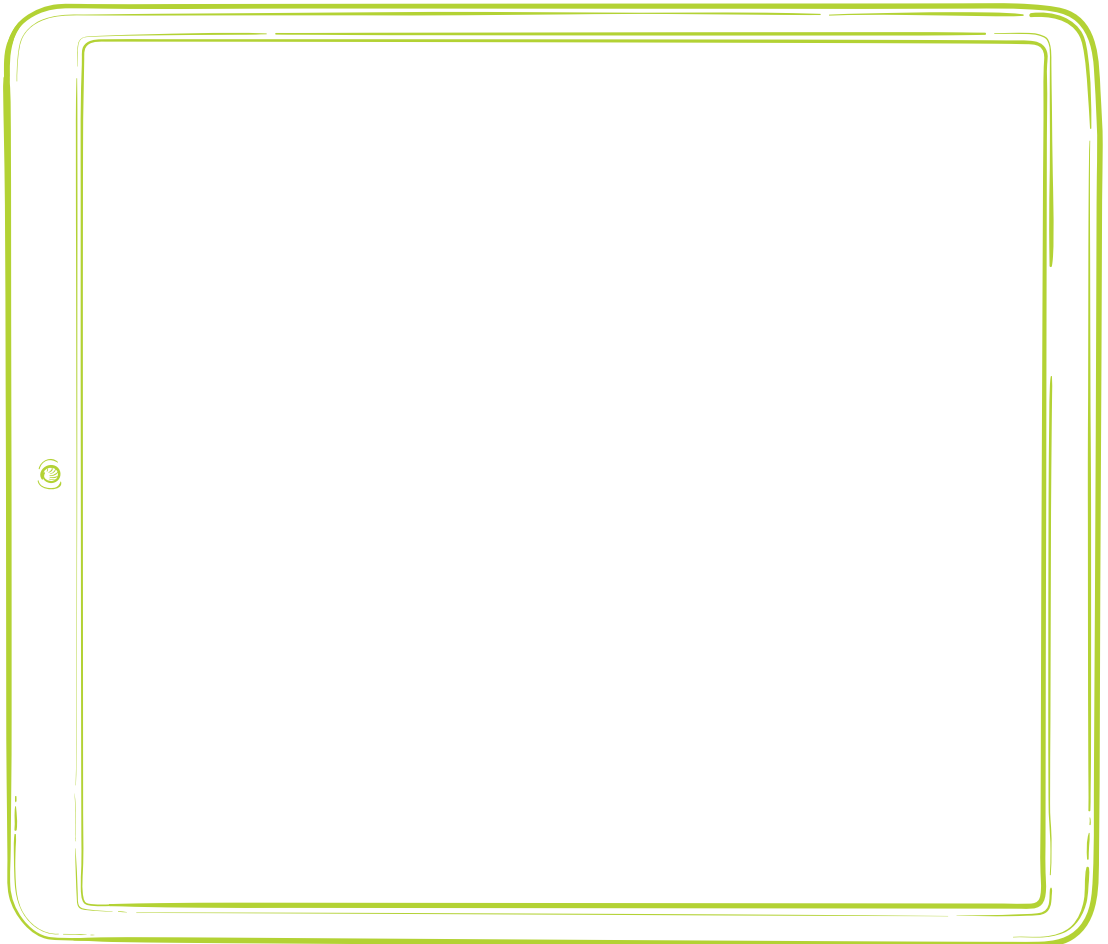
나라면,



독서 중

• 설명을 보고 '암붉은오색나비 수컷'을 그려 보세요.

[84쪽] 난 믿을 수 없어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다. 그러자 어머니가 장롱 깊숙한 곳을 뒤져 옷 하나를 내왔다. 바로 암붉은오색나비 수컷이 그려져 있는 어머니의 치마였다. 검은 날개의 등에 하얀 무늬가 크게 네 개 그려져 있고 양 끝에 작은 게 하나씩 찍혀 있었다. 하얀 무늬 아래로는 푸른색이 하얀 무늬로 번지듯 보이는 황홀한 나비였다.





독서 후

• 다음은 《나비 부자》의 주요 장면입니다. 그림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써 보세요.

그림	장면 설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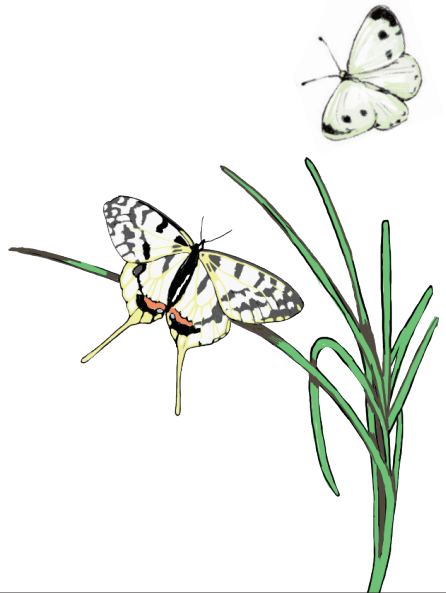


독서 후

• 다음은 《나비 부자》의 주요 장면입니다. 그림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써 보세요.

그림

장면 설명하기





독서 후

• 《나비 부자》 내용을 떠올리며 아래 질문에 답하세요.

1 나비 부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2 병풍을 그릴 때 나타난 방해꾼은 누구였나요?

3 방해꾼을 막아선 건 누구였나요?

4 청인은 주원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